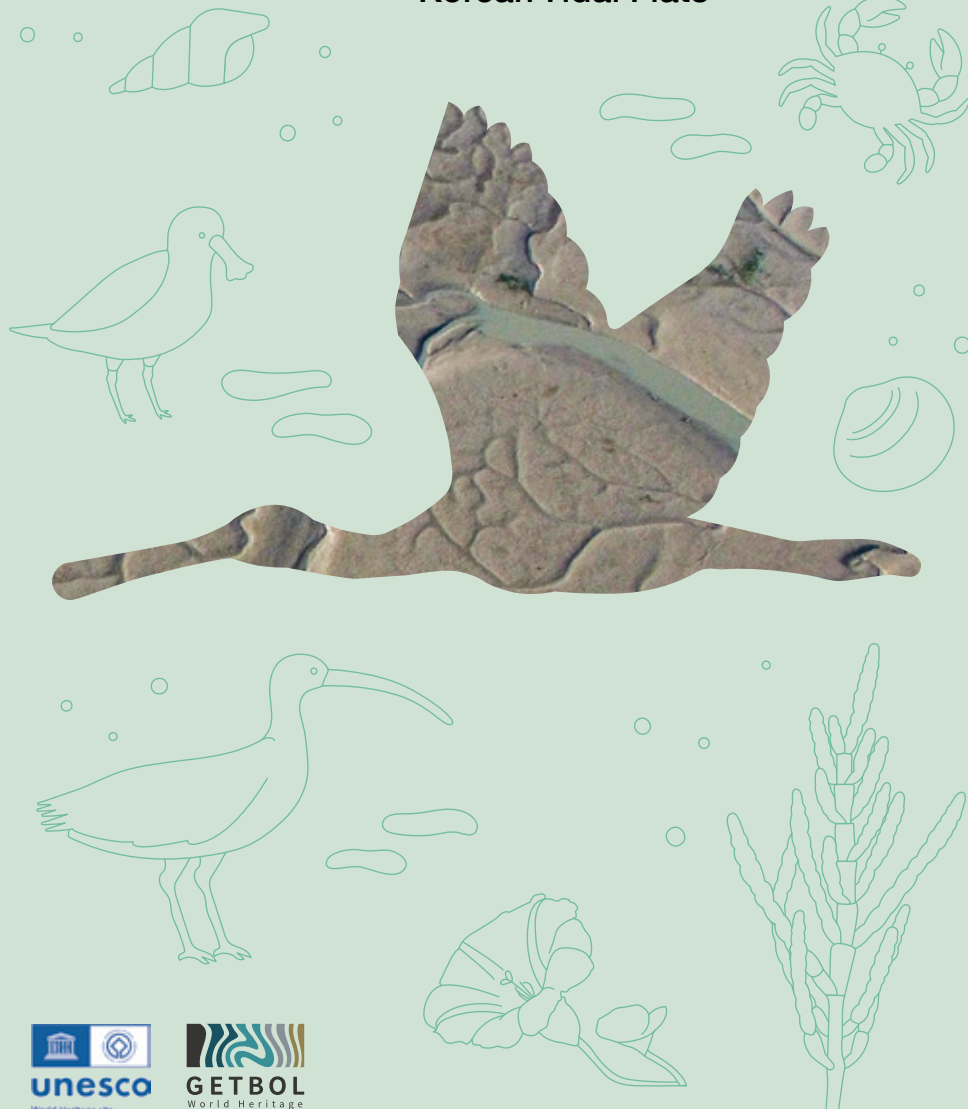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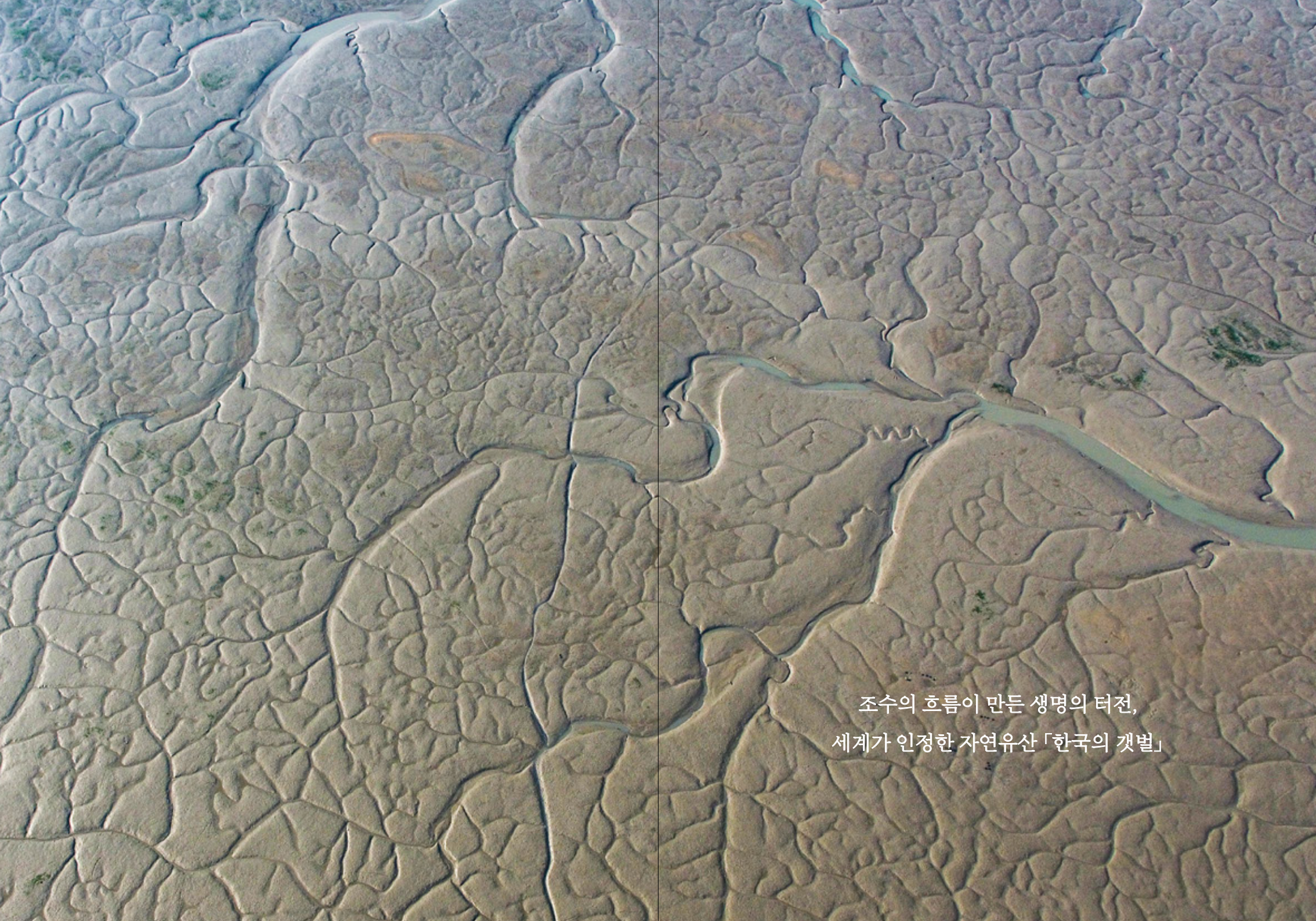


함남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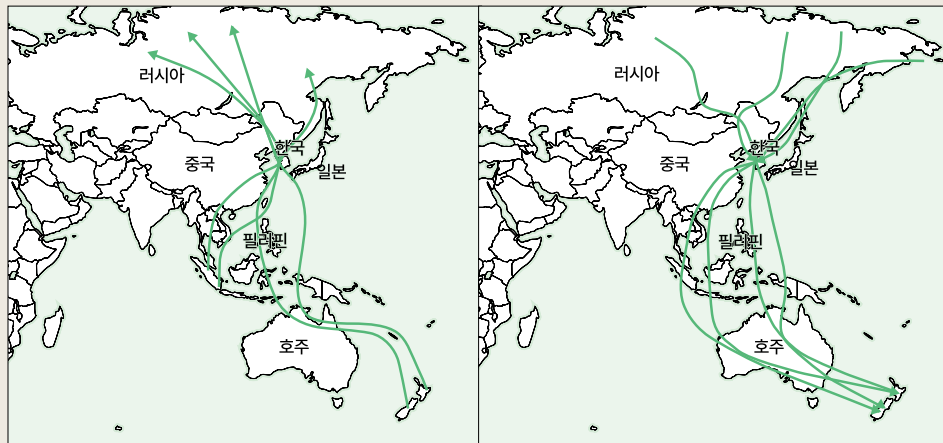


조수의 흐름이 만든 생명의 터전,
세계가 인정한 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경이로운 생명의 공간,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한반도 서남해안의 「한국의 갯벌」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펄, 모래, 암반 등 다채로운 퇴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저서동물 1,349종과 물새 114종 등 총 2,446여 종의 생명을 부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자랑합니다. 그 독보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정식 등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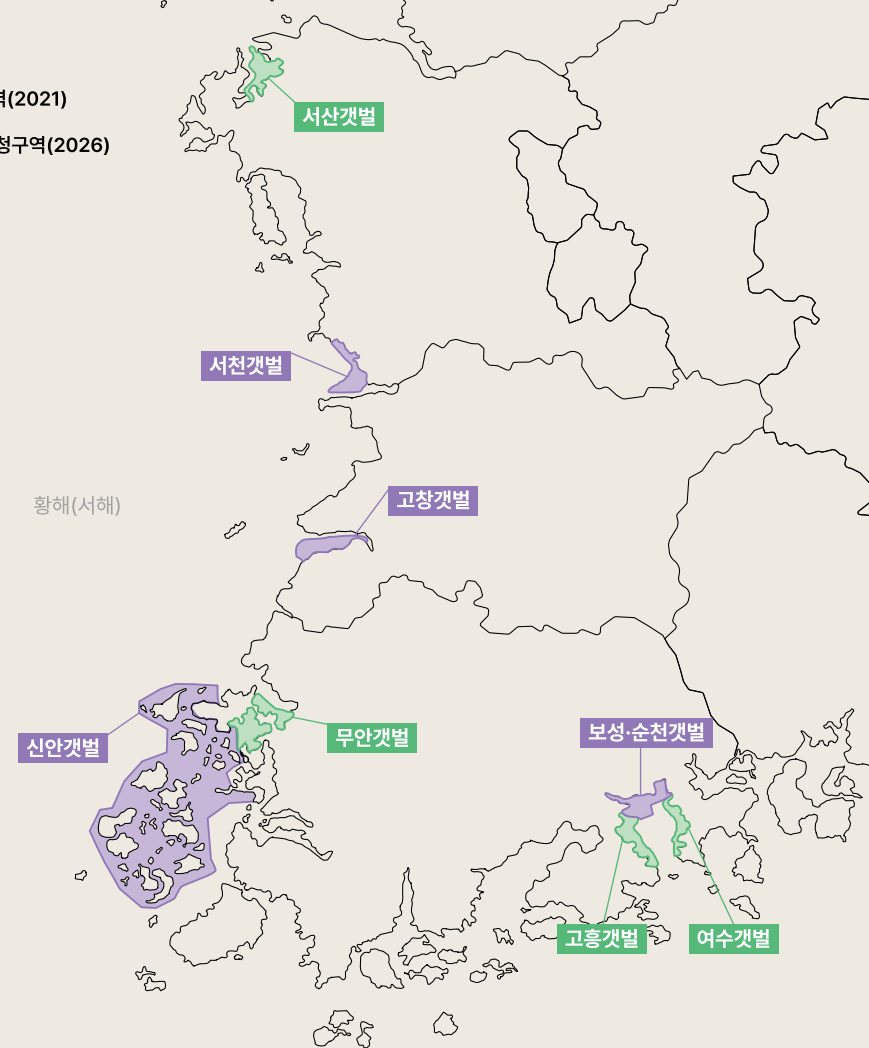
유네스코가 인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등재기준 (X)인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필수 서식지'라는 점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곳은 호주·뉴질랜드에서 시베리아·알래스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EAAF)'의 가장 좁은 병목 구간에 위치합니다. 철새들의 긴 여정 중 대체 불가능한 핵심 중간 기착지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단 400~600개체만 남은 심각한 멸종위기종 넓적부리도요(CR)를 비롯해 IUCN 적색목록 24종과 고유종 범게 등이 이 풍요로운 품에 기대어 생명을 이어갑니다.



봄철새의 이동경로

겨울철새의 이동경로

등재유산구역(2021)
확대등재 신청구역(2026)



IUCN 적색목록
2026. 7. 기준

- EX 절멸
- EW 야생절멸
- CR 위급
- EN 위기
- VU 취약
- NT 준위협
- LC 관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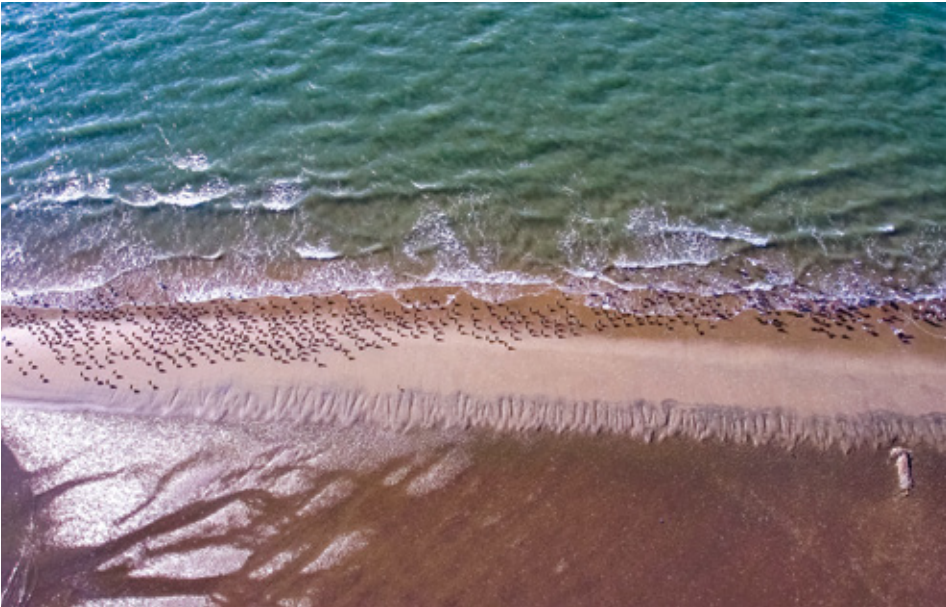
나아가 「한국의 갯벌」은 서식지 보호와 이동성 물새 경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2026년 7월을 목표로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 중입니다. 기존 지역에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을 더하는 이번 여정은 「한국의 갯벌」이 지닌 생태계적 가치를 완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경이로운 생명의 요람, 「한국의 갯벌」은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 미래로 물려줄 인류 공동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등재유산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시작

동아시아-대양주를
있는 철새의 낙원,
서천갯벌

서천갯벌은 금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풍부한 영양염류와 퇴적물 덕분에 연속유산 중 평균 기초생산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생태적 이점 때문에 매년 77여 종, 연간 약 90만 마리에 달하는 많은 물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IUCN 적색목록 14종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CR)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서천갯벌 유부도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1단계 유산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의 갯벌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기준 (X)를 충족하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자연 서식지입니다. 또한 다양한 갯벌 환경을 기반으로 1,783종의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를 부양하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가장 좁은 병목 구간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물새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유 생물종의 요람이자
독특한 쉼니어를 품은
고창갯벌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가 서식하며 바지락과 동죽이 자라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한 세계에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매년 8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으며, IUCN 적색목록 13종을 비롯해 특히 멸종위기종인 황새(EN)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모래 퇴적체 쉼니어는 물에 잠기지 않아 물새들에게 안전한 둥지와 휴식처가 됩니다.

고창갯벌 쉼니어



국내 최대 면적과
깊은 퇴적층, 독보적
생물다양성을 품은
신안갯벌

다도해의 특성상 파랑이 작고 퇴적이 활발하여 넓은 펄갯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25m 이상의 깊은 퇴적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조류 142종과 대형저서동물 730종, 80종 17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IUCN 적색목록 12종을 포함해 알락꼬리마도요(EN), 붉은어깨도요(EN), 왕눈물떼새(EN) 등이 꾸준히 관찰됩니다. 이들 물새의 중요한 서식 환경인 수많은 무인도는 물새들의 이상적인 번식지와 서식지가 됩니다.

신안군 퍼플교 갯벌



칠면초 군락과 흑두루미

가장 고운 펄과 흑두루미의
최대 안식처,
보성·순천갯벌

연속유산 중 입자가 가장 고운 펄갯벌이 발달했으며, 하천의 담수가 유입되는 하구역을 따라 넓은 염습지와 염생식물 군락이 펼쳐집니다. 이 풍요로운 환경은 저서규조류 188종과 해조류 23종, 대형저서동물 482종을 부양하며, 흰죽지(VU)를 포함한 IUCN 적색목록 물새 16종 등 총 82여 종, 27만여 마리의 물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 최대 흑두루미(VU) 월동지이며 최근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VU)의 번식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갯게, 붉은발말뚝게, 대추귀고동 등 다양한 멸종위기 갯벌 생물들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짚뚱어

신청유산 : 생태계 연계성과 가치의 완성

우수한 물새 생태 환경과
법정보호종의 요람
여수갯벌

여자만 동쪽에 위치한 여수갯벌은 풍부한 실트 퇴적물로 물새들이 살기에 최적의 생태 환경을 자랑합니다. 조류를 제외할 때 갯게, 붉은발말뚝게, 상괭이 등 등재 및 신청 유산을 통틀어 가장 많은 6종의 법정보호종이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어새(VU), 흑두루미(VU), 청다리도요사촌(EN) 등 여자만에 도래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조류 18종 중 9종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는 여수갯벌이 여자만이라는 단일 생태계내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조류 부양에 충분히 기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



확대 등재를 추진 중인 2단계 유산은 충남 서산, 전남 여수·고흥·무안의 갯벌을 아우릅니다. 이번 확대는 이동성 물새의 서식 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황해 연안 갯벌의 전반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해, 기존 1단계 유산의 생태적 연속성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한국의 갯벌』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한층 더 완전한 가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두꺼운 미세 펄갯벌과
높은 해조류 다양성
고흥갯벌

여자만 내 실트와 점토질 퇴적물이 최종적으로 모여 두꺼운 세립질 펄갯벌을 형성한 고흥갯벌은 총 725종의 풍부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대형저서동물 552종을 비롯해 신청유산 중 가장 높은 다양성을 자랑하는 해조류 54종 등이 어우러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인근 갯벌과 함께 전 세계 검은머리갈매기(VU) 생존개체수의 약 2.3%가 이곳에서 월동합니다. 또한, 알락꼬리마도요(EN)와 청다리도요사촌(EN) 등 국제적 멸종위기조류의 장거리 여정에 필수적인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칠게와 짱뚱어



신안갯벌과의 높은
연계성과 다양한
염생식물을 지닌
무안갯벌

무안갯벌은 염습지, 펄·혼합·모래갯벌, 암반 등 다양한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안탄도만갯벌과 무안함해만갯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안탄도만갯벌은 인접한 신안갯벌과 함께 두 갯벌을 함께 이용하는 물새의 서식지로 높은 연계성을 지니며, 총 1,318 종의 갯벌생물을 부양합니다. 무안함해만갯벌은 저어새(VU), 노랑부리백로(VU) 등 국제적 멸종위기조류 17종이 출현하며, 구성 요소 중 물새류(94종)와 염생식물(94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무안 갯벌 작업



점박이물범과 회귀 조류가
선택한 최고의 서식지
서산갯벌

가로림만에 위치한 서산갯벌은 2단계 신청지역 중 최북단에 자리합니다. 신청유산 중 가장 많은 고유종 11종과 법정보호종 7종이 서식하며,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점박이물범이 정기적으로 찾는 곳입니다. 또한 조류 174종이 기록되어 신청 지역 중 조류 다양성이 가장 높고, 저어새(VU)와 알락꼬리마도요(EN) 등 전 세계 생존개체수의 1% 이상이 갯벌에 의존합니다. 특히 노랑부리백로(VU)는 전 세계 생존개체수 5%에 해당하는 180여 마리가 찾아옵니다.

점박이 물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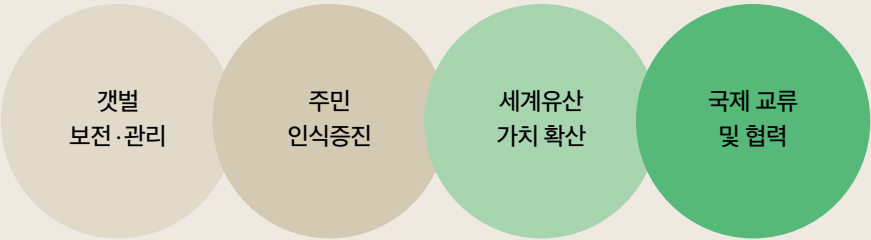
사람들의 부지런한 손길은 갯벌을 순환시키는 동력이 되고,
뒤섞인 갯벌은 다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웁니다.
자연의 순리에 사람의 정직한 수고가 더해진 땅.
「한국의 갯벌」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야 할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추진단은 갯벌 생태계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매년 물새의 이동 패턴, 갯벌 생물종 현황, 서식지 안정성, 위협 요인 등을 조사하는 ‘통합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Yancheng Heritage Center, EAAFP, RSPB 등 유수의 국제기구와 긴밀히 교류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조류의 개체수 보전에도 앞장섭니다. 나아가 2단계 확대 등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인류 공동의 소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생태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가교

주요사업

갯벌 보전·관리

갯벌 생태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한 유산가치 보전

통합모니터링(물새, 생물종, 서식지, 위협요인 및 유산관리)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수행, 물새류 정밀 번식 모니터링, 세계유산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구축



주민 인식증진

소통·교육·참여를 통한 지역주체 및 관계자의 세계유산 가치 이해 증진과 보전 참여 확대

CEPA 행동계획 수립, 지역주민 국내외 선진지 답사, 유산관리자 인식강화 워크숍, 영리더스 포럼, 미래세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세계유산 가치 확산

갯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브랜딩과 전시·콘텐츠·생태관광 개발

세계유산 활용 사업, VR·홍보영상·안내판 제작 및 보급, 언론 및 대중매체 광고, 홍보부스 운영, 플로깅 활동 등



국제 교류 및 협력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유산 보전 네트워크 확대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국제 포럼 개최 및 참여, 국제회의의 참여, 해외 우수사례 교류 등



「한국의 갯벌」과 국제적 협력

하나의 바다로 연결된 국제기관들과 함께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공동의 논의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전 관리
네트워크를 넓혀가겠습니다.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엔청습지센터 MOU 체결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O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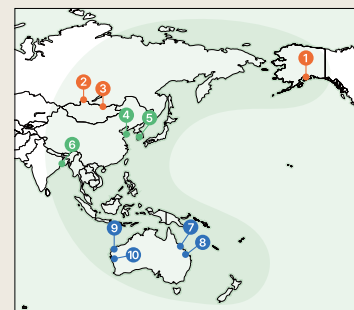


제12회 EAAFP 파트너총회 (MOP12)



제8차 IUCN 아시아지역 보전포럼 (RCF)

갯벌, 황해지역의 세계유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내 물새 및 연안서식지 관련
세계자연유산지역 10개소(주황색: 번식지, 녹색: 중간기착지, 파란색: 비번식지)

- ① Klugane / Wrangell-St. Elias / Glacier Bay / Tatshenshini-Alsek
- ② Uvs Nuur Basin ③ Landscapes of Dauria ④ 중국 황해 연안-발해만의 철새 보호구 ⑤ 한국의 갯벌 ⑥ The Sundarbans ⑦ Wet Tropics of Queensland
- ⑧ Great Barrier Reef ⑨ Ningaloo Coast ⑩ Shark Bay, Western Australia



2026. 7. 기준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585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5층

T 061-246-3356~7(유산관리부) | 061-282-3358(확대등재부)



공식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